

금호아시아나, 사상 최대 영업이익

2007년 2/4분기 전체 매출 4조6000억원 ... 금호타이어는 5173억원

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7년 1/4분기에 이어 2/4분기에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며 호조를 보였다.

금호아시아나는 7월23일 계열사들의 2/4분기 실적을 합산한 결과, 전체 매출이 4조6000억원으로 1/4분기에 비해 5120억원(12.5%) 정도 늘었고, 영업이익은 3460억원으로 1/4분기보다 약 460억원(15.2%) 증가했다고 발표했다.

금호아시아나는 1/4분기에도 3006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창사 이래 최대 기록을 세웠으나 2/4분기에 346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.

경상이익과 순이익은 3400억원과 2560억원으로 1/4분기 대비 각각 45.7%, 46.7% 정도 늘었다.

금호타이어는 2/4분기 원자재 가격 안정과 고수익 타이어 판매 증가에 힘입어 매출 5173억원에 영업이익 354억원을 올리면서 1/4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.

금호산업은 수주 잔고가 2007년 대비 40% 이상 늘고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2/4분기 매출 4544억원, 영업이익 363억원을 기록했다. 대우건설도 2/4분기 매출 5950억원에 영업이익 1579억원을 기록하면서 호조를 보였다.

다만, 아시아나항공은 성과급 지급과 비수기가 겹쳐 매출액 8612억원에 영업이익 206억원에 그쳤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7/23>